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복 초등학교 교장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살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잘 산다.”라는 노랫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있음으로 잘난 사람이 있음은 알고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모두가 똑같으면 잘나고 못난 것이 없다.

비교하기 때문에 잘나고 못난이 생긴다.

조선 세종 때 유명한 정승이었던 황희(1363~1452)가 관직에 있을 때 지방순방길에 있었던 이야기다.

두 마리의 소로 쟁기질하는 농부를 보고 “여보게 농부, 어느 쪽 소가 일을 더 잘하는가?” 하고 묻자 농부는 쟁기질을 멈추고 황희 정승의 곁에 와서 귀에다 입을 대고 “왼쪽 검정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라고 말했다.

황희는 이상히 생각해서 “그 간 말을 여기까지 와서 귀에 대고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자 농부는 “두 마리 소가 다 열심히 일하는 데 소가 듣는 곳에서 어느 쪽 소가 일을 더 잘한다면 다른 쪽 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서 소가 듣지 않는 곳에 와서 말씀드린 것입

니다. 어른은 알만한 분이 왜 그런 비교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자 황희는 “소가 말을 알아듣다니” 하자 농부는 “소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쟁기질을 하겠습니까?” 하며 황희가 보는 데서 농부는 농부가 말 한대로 두 마리의 소가 움직이고 멈추고 가고 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정백리로 유명한 황희 정승은 관직에 돌아와 농부의 말을 명심하여 비교하고 평가하는 상대평가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고 있다.

사람마다 열골 모습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며 사는 환경이 다르다.

이러한 인생을 비교 평가하고 있는데, 비교 평가하는 데는 척도인 평가 기준이 있다.

그 평가에는 한 사람만 보고 목표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의 절대 평가가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앞서고 뒤선 서열 평가인 상대 평가가 있다.

상대평가에서 앞선 자는 교만하

고 남을 멸시하며 뒤선 자는 열등 의식을 갖게 된다.

절대 평가에선 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의 자기 평가이기 때문에 성취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비교하는 상대평가는 앞선 자에게도 뒤선 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가의 인생 목적과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겠다는 인생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부자가 되겠다면 왜 나의 인생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어느 수준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자 수준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인생의 종말은 빈손으로 가는데 부자가 된 다음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인생이 목적도 목표도 없이 산다면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니며, 확실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

목적도 목표도 없는 인생은 맹목

적인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행복의 척도는 비교 평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인 자기 목표 도달에 대한 보람에서 찾아야 한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라는 노랫말처럼 나는 내가 선택한 인생길에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 있는 삶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교육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가는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며 피교육자의 편에서도 자기 목표 도달에 대한 자극제로써 평가는 해야 한다.

비교 평가의 문제점을 황희 정승에게 일깨워준 농부의 지혜를 우리는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누구는 어떤데 나는 어떻게 하는 자기 우월감과 자기 비하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생에서 비교하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다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외부의 변화를 몰라서는 안 되며, 외부의 변화에 대한 나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 도달을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보다 잘하고 못 한다는 비교하는 평가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기 목표에 도달하여 만족을 느끼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비교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실천했으면 한다.

사설

코로나19, 긴장의 끈 놓아선 안된다

광주·전남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0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긴장을 풀기엔 아직 이르지만 시민들의 협조와 방역당국·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있다.

특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30%대에 육박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추석연휴 기간이다.

최근 여러곳에서 이동자제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고속도로도 통행료 면제도 불가하다고 했지만 연휴 기간 전국에서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 관광지·호텔 등은 예약이 꽂혔다고 한다.

일부 보수단체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까지 강행한다고 하니 현재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달 광복절 당시 열

린 집회보다 더 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철저히 집회를 막는다고 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이 있는 단체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기필코 막아야 한다”며 “그것은 법으로 보장돼 있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차단하고, 차단이 풀리면 해산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의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광복절 집회로 전국이 한차례 코로나19 홍역을 앓았다.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기로에 섰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의료진들은 누적된 피로에 힘들어하고 있다.

두번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는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해야하고 법적인 모든 절차를 총동원해 막아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집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자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된다.

진입이 힘든 좁은골목과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미비하여 초기진압의 어려움,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한 추가화재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주택화재는 더욱더 위험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년 2월부터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미국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기구이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 주택화재를 예방하자.

장흥석/무안소방서남약19안전센터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환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기출신 신고 182	▲인광 일교율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부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